

순명효황후의 인간을 통해 본 순명효황후와 김상덕의 관계

정소영*

〈차 례〉

1. 머리말
2. 인간 〈평일 존명만〉의 작자 비정 논의 재검토
3. 순명효황후와 김상덕의 관계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순명효황후의 인간으로 추정되는 〈평일 존명만〉으로 시작하는 인간의 작성자 문제를 재검토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순명효황후와 김상덕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평일 존명만〉은 순명효황후가 1894년 김상덕에게 보낸 첫 번째 인간으로 소개되었으나, 그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였다. 이에 〈평일 존명만〉의 내용과 구조의 특징을 세밀히 검토하였다. 인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상덕이 역임한 관직과 활동이 인간의 수신자의 것과 일치하였다. 또한 해당 인간의 필적과 순명효황후의 것으로 알려진 여타 인간들의 필적을 비교하여 보면, 자형이 다양한 형태를 보이면서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명성황후의 필적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평일 존명만〉의 필적 또한 순명효황후의 필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평일 존명만〉에서 순명효황후는 김상덕과 자신의 관계를 매개해주는 인물로 '송헌 외숙'을 언급하였다. 순명효황후가 '송헌 외숙'이라 지칭하는 인물은 순명효황후의 어머니인 송씨의 형제 송태현이며, 김상덕은 송태현의 생부 송재원의 딸인 송씨와 재혼한 관계에 있었다. 즉 김상덕과 순명효황후는 이모부와 조카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순명효황후가 이러한 김상덕에게 첫 번째 인간을 보낸 1894년은 일본의 경복궁 점령으로 고종과 왕실이 위기에 처해있던 때였다. 이 시기 고종은 영국영사관으로 파천을 시도하였으며, 또한 같은 시기 인천부사를 지내고 있던 김상덕은 영국 측 인사들과 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김상덕의 이러한 활동은 그가 단순한 왕실의 인척이 아닌 근왕세력으로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

* 원광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서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언간은 순명효황후가 인척이자 근왕세력이었던 김상덕에게 왕실 보호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순명효황후, 김상덕, 언간, 한글편지, 고종

1. 머리말

왕실 여성의 대표적인 존재라 할 수 있는 왕비들은 언문을 통해 여러 형태의 글을 남겼다. 언교(諺敎)와 언간(諺簡), 언문으로 된 저작 등이 그것이다. 그 중 언간은 대부분의 삶을 궁궐에서 보내야만 했던 그들에게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였다. 또한 언간은 사적인 영역에서 일상의 생활 감정을 전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으로 엄격한 왕실의 법도 안에서 평범한 일상의 감정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¹⁾ 조선시대 왕비들이 작성한 언간은 현재 총 343건이 전해진다. 언간을 받은 주요 수신자는 손녀·딸·사위·아버지 등 직계 가족과 시누이·시고모·조카·재종동생·집안사람 등으로, 이러한 수신자의 범주는 왕비들이 주로 언간을 주고받은 이들이 친·인척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²⁾

왕비가 친·인척 관계가 아닌 측근들에게 보낸 일부의 언간들도 있다. 현종(顯宗)의 비(妃)인 명성왕후(明聖王后)가 송시열(宋時烈)에게, 정조(正祖)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가 채제공(蔡濟恭)에게,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가 김상덕(金商惠)에게 보낸 언간 등이 그것이다.³⁾ 이들 언간들은 발수신자들이 친·인척 관계 관계에 있지 않아 인간의 목적과 관계는 해당 자료의 성격을 파악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명성왕후가 송시열에게 보낸 언간은 정치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

1) 황문환, 『언간: 조선시대의 한글 편지』, 역락, 2015, 182~185쪽.

2) 이남희, 『조선시대 언간을 통해 본 왕실 여성의 삶과 생활세계』, 역락, 2021, 26~29쪽.

3) 순명효황후는 순종(純宗)의 첫 번째 비(妃)로 1882년 세자빈에 책봉되었고,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됨에 따라 황태자비가 되었다. 그러나 순종이 황제에 즉위하기 전인 1904년 사망하여 황후에 즉위하지는 못하였으나, 1907년 순종 즉위년에 황후로 추존되었다. 『순종실록』 권1, 순종 즉위년 7월 23일 양력) 본고에서는 추존된 시호에 따라 순명효황후로 표기하기로 한다.

다.⁴⁾ 해당 언간은 송시열을 왕과 서인(西人)의 지지 세력으로 삼고자했던 명 성왕후가 그를 조정으로 불러들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혜경궁홍씨가 채제공에게 보낸 언간은 혜경궁홍씨가 정조의 건강을 염려하여 채제공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성으로 옮기던 시기에 대신에게 보낸 언간으로 공적이면서도 일종의 정치적 인 의미를 지니는 언간으로 볼 수 있다.⁵⁾ 이렇듯 두 언간은 당대 왕실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명성왕후와 혜경궁 홍씨가 송시열과 채제공이라는 주요 정치 인사들에게 보낸 언간으로 발수신자 간의 관계나 서신 발송의 맥락이 충분히 해석 가능한 언간들이다.

그러나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언간은 위의 두 언간에 비추어보면 발수신자의 관계가 명확치 않아 그 맥락의 해석에 의문을 남긴다. 순명효황후가 보낸 언간의 수신자는 조정 대신인 김상덕이다. 김상덕은 1888년 경과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 1894년 인천부사(仁川府使)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1906년 민종식(閔宗植)과 더불어 을사조약에 반대하는 의병을 일으켰던 인물이다.⁶⁾ 이러한 내력을 가진 김상덕과 당시 세자빈이자 황태자빈인 순명효황후는 1904년 순명효황후가 사망할 때까지 언간을 주고받았다.⁷⁾ 그러나 순명효황후가 남긴 언간의 수신자가 여타 언간

4) 이남희, 위의 책, 2021, 52쪽; 어강석, 「순명효황후 언간의 작가문제와 작성시기 고찰」, 『청계사학』 25, 청계사학회, 2023, 70쪽.

5) 이남희, 「혜경궁홍씨(惠慶宮洪氏)(1735~1815)의 삶과 생활세계 - 언간(診簡)과 언교(諭敎)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1(1),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 242~244쪽.

6) 김상덕의 가계와 관직생활 및 낙향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이종록, 「18세기 경주김씨(慶州金氏) 학주공파(鶴洲公派)의 대두와 기호학계에서의 위상」, 『한국계보연구』 11, 한국계보연구회, 2021; 장경호, 「김상덕의 현실인식과 사회활동 (1852~1924)」, 『청계사학』 25, 청계사학회, 2023.

7) 아래의 표는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언간의 현황과 발신시기 및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시대 한글편지'의 순서에 따라 언간을 분류하였고, 발신시기는 이남희의 연구를 참조하였으며, 내용은 어강석과 이남희의 연구, '조선시대 한글편지'를 참조하였다. 한편 아래 표에서 '1897년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2)-1'과 1897년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2)-2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조선시대 한글편지'에서는 하나의 서신으로 보았으나, 어강석과 이남희는 각각 독립된 서신으로 보았다. 어강석의 연구에서는 2번과 7번으로, 이남희의 연구에서는 ③번과 ⑦번으로 소개되었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대조의 용이성을 위해 어강석과 이남희의 분류를 따랐다. (어강석, 「藏書閣 所藏 純明孝皇后 관련 한글 簡札」의 내용과 價値」, 『藏書閣』 17,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66~167쪽; 이남희, 「구한말 순명효황후

과는 달리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김상덕이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기존 연구는 이들의 관계를 사제지간으로 보거나 또는 김상덕이 1892년 세자시강원 필선을 지낸 바 있어 순종의 스승으로서 그 인연이 이어진 것으로 보았다.⁸⁾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 조선시대에는 왕비나

(1872~1904) 인간의 특성과 의미], 『영주어문』 45권, 영주어문학회, 2020, 230쪽; ‘순명효황후 언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시대 한글편지, <https://archive.aks.ac.kr/letter/letter.do?list.do?itemId=letter&gubun=lettername&depth=1&upPath=&dataId=%EC%88%9C%EB%AA%85%ED%69A%A8%ED%99%A9%ED%9B%84+%EC%96%B8%EA%B0%84> (검색일 2023.08.14)

| 순서 | ‘조선시대 한글편지’ 분류 | 개별명칭 | 발신시기 | 내용요약 |
|----|-------------------------------|---------|------------------|---|
| 1 | 1894년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 | 평일 존명만 | 1894. 10. 11. 이후 | 김상덕에게 처음 보낸 서신으로 보이며, 인천에서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김상덕에게 그의 고향에서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구매할 것을 요청함. |
| 2 | 1896년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 | 구리 소찰이 | 1894. 11. 13. 이후 | 시골로 내려가는 김상덕을 전송하며,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계속해서 서신을 주고받을 것을 청함. |
| 3 | 1897년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2)-1 | 일즈 황송 등 | 1897. 2. 20. 이후 | 귀양 후 사면된 김상덕을 축하하고, 고종의 환궁 후 황실의 근황을 전하면서도 그간 기별이 없던 김상덕에게 서운함을 토로함. |
| 4 | 1897년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3) | 봉서 보습고 | 1897.7.7. | 김상덕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 안부와 근황을 전하면서 명성황후의 죽음에 대한 아픔을 전함. |
| 5 | 1898년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 | 오리간만의 | 1897.7.13. | 김상덕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 시골 생활에 대한 안부와 고종 탄신일 등의 근황을 전하고, 명성황후에 대한 그리움과 흥년으로 민정이 어수선했으므로 인한 답답함을 토로함. |
| 6 | 1897년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1) | 작년 일즈 | 1902.1.23. | 신년 안부와 근황을 전하고, 새해에는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함. |
| 7 | 1902년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 | 회답호소서 | 1902.1. | 김상덕이 나랏일에 신명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하며, 청할 것이 있으니 민영환과 동행하여 와주기를 청함. |
| 8 | 1897년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2)-2 | 아읍거니와 | 1902 | 김상덕이 문안하여 줄 것과 벼슬에 나서줄 것을 청함. |
| 9 | 1904년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1) | 거년의 소식 | 1904.1.23. | 김상덕에게 새해 안부와 황실의 근황을 전하면서 자신은 신병으로 몸이 편치 않음을 전함. |
| 10 |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 | 거월의 봉서 | 1904.3.5. | 김상덕의 서신에 대한 답장. 안부와 황실의 근황을 전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음을 전함. |
| 11 | 1904년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2) | 낭측 봉서 | 1904.4.18. | 김상덕이 보낸 두 차례의 서신에 대한 답장. 안부를 묻고, 궁에서 발생했던 화제에 대한 당혹감을 토로. |

8) 어강석, 앞의 논문, 170쪽; 박정숙, 「순명효황후 언간체의 조형성 고찰」, 『한국어정보학』 13(2), 한국어정보학회, 2011, 20쪽;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편, 『조선시대 한글 편지 판독자료

왕세자빈에 대한 규정화된 교육제도는 없었다. 무엇보다 순명효황후가 순종의 비로 책봉되기 전인 1885년부터 김상덕에게 첫 인간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1894년까지 순종의 강학을 맡았던 세자시강원을 거친 관리는 약 140여 명이었으며, 이 중 필선의 직을 역임한 자의 수는 35명에 달했다.⁹⁾ 순종의 스승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인물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순명효황후의 첫 번째 인간으로 추정되는 <평일존명만>의 작성 시기는 1894년 10월 이후로 비정되고 있다.¹⁰⁾ 그러나 해당 인간에서는 순명효황후가 이전에는 김상덕을 만난 적이 없음을 서술하고 있어 1892년부터 인연을 이어왔을 것이라는 기존의 해석과 배치된다.¹¹⁾ 따라서 김상덕이 세자시강원의 필선을 맡았다는 것만으로 순명효황후와 그가 사제지간의 연을 맺었다고 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순명효황후와 김상덕의 관계의 모호함은 인간의 내용과 그 맥락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더한다.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인간의 내용은 주로 안부와 근황을 전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김상덕에게 입궁할 것 또는 출사할 것을 전하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그 문구를 상세히 살펴보면 세자빈이 조정 대신에게 보낸 서신으로 보기에 많은 감정이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왕비들의 인간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명성왕후가 송시열에게 보낸 인간과 혜경궁홍씨가 채제공에게 보낸 인간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명확히 전달하려는 맥락

집』 3, 역락, 2013, 553쪽; 이남희, 앞의 책, 225쪽. 기존의 연구들은 세자시강원에서 세자빈이나 태자비까지 교육을 담당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조선시대 왕비나 왕세자빈에게 경연 및 서연과 같은 교육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정황상 김상덕이 세자시강원 필선으로 있을 때 순명효황후와 인연을 맺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 9) 『승정원일기』의 1885년 1월부터 1894년 12월까지 세자시강원의 관직임명기록을 모두 살펴본 결과 총 146명이 세자시강원의 각종 관직을 역임하였다. 여기에는 민병석, 민영소, 민병승, 민종식, 민영환, 민영준, 민형식, 민응식 등 다수의 민씨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순택, 심이택, 김병시, 조병세, 이완용, 이준용 등 다양한 인사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
- 10) 해당 인간은 이남희의 연구에서는 1번 편지로 소개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시대 한글편지'에서는 '1894년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로 소개된다. 한편 이하 인간의 명칭은 『조선시대 한글 편지 판독자료집』 3과 이남희와 어강석의 연구를 참조하여 인간이 시작하는 문구의 일부로 표기하였다.
- 11) 같은 이유로 어강석은 <평일존명만> 인간이 순명효황후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어강석, 앞의 논문, 87쪽)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2장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과는 대비되는 지점이다. 순명효황후가 인간에서 드러낸 감정은 오히려 왕비들이 가까운 가족들에게 보낸 인간과 유사한 감정 표현에 가깝다.

순명효황후는 친척들의 궁중 출입을 엄격하게 단속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본가에 편지를 보낼 때도 안부를 묻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은 없었다고 한다.¹²⁾ 순명효황후의 평소 성품이 이러하였기에 그가 김상덕에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감정을 담은 인간을 보낸 것은 자연히 둘 사이의 관계에 의문을 낳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순명효황후와 김상덕의 관계 규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이상의 의문점들에 답을 구하고자 한다. 먼저 검토할 것은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로 추정되는 <평일존명만>을 순명효황후의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현재 전해지는 인간 중 지속적으로 편지를 왕래해온 인간의 경우에는 수신인과 발신인 등이 누락되어 있거나 내용에도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용어를 통해 편지를 작성할 당시의 상황이나 감정을 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편지의 수신자와 발신자가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¹³⁾ 순명효황후와 김상덕도 지속적으로 인간을 주고받았다. 또한 <평일존명만>을 제외한 다른 10건의 인간은 이미 두 사람이 잘 아는 사이임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순명효황후와 김상덕의 관계를 살펴해보자면 이들 사이의 첫 번째 편지로 추정되며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평일 존명만>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2장에서는 <평일 존명만>의 작자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재검토하여 해당 인간이 순명효황후의 인간임을 규명하고자 한다.¹⁴⁾

12) 『고종실록』 권45, 42년 1월 4일 양력.

13) 강연임은 편지의 텍스트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며, 명성황후의 편지는 이미 편지를 받을 사람이 고정되어 있고, 편지 왕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신인과 발신인 등이 누락되어 있고, 그 내용이 간략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수발신자가 서로 공유하는 배경정보에 의존해 답신을 전달하다 보니 생략과 내용에 의한 표현이 많다고 지적한다(강연임, 『『명성황후 편지글』의 텍스트 구조와 특징』, 『어문연구』 89, 어문연구학회, 2016, 5쪽; 9쪽). 이러한 특징은 순명효황후의 인간에도 대입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14)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은 해당 인간을 순명효황후의 인간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남희는 이를 받아들여 인간의 발신 시기를 특정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편, 앞의 책, 2013, 552쪽; 이남희, 앞의 논문, 232~235쪽)

3장에서는 <평일존명만> 인간에 등장하는 단서와 김상덕이 남긴 자료를 통해 순명효황후와 김상덕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하였듯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또는 남편의 스승과 그 제자의 부인의 관계로만 보기는 어렵다. 내용에 있어서도 가족과도 같이 매우 친밀하며, 내밀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에 순명효황후와 김상덕의 관계를 순명효황후의 인간과 다양한 자료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볼 수 있는 19세기말 역사의 한 단면을 비춰보고자 한다. 이는 인간이라는 개인적인 자료를 통해 당대의 실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또한 이는 지금까지 주로 서예사와 생활사 분야¹⁵⁾에서 이루어져온 순명효황후 인간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인간의 역사 사료로서의 활용의 가치를 제고하고 그 역사적 함의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간 <평일 존명만>의 작자 비정 논의 재검토

<평일 존명만>¹⁶⁾으로 시작되는 인간은 1894년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는 어강석의 다음 논문을 참조. 어강석, 앞의 논문, 80~87쪽.

15) 서예사 분야의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박정숙, 앞의 논문, 2011; 성은하, 『純明孝皇后 한글書簡의 美學的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박정숙, 『조선시대 한글편지 서예미 변천사적 고찰 - 16세기~19세기 필사인간을 대상으로』, 『서예학연구』 26, 한국서예학회, 2015; 정복동, 『인간의 서예학적 가치, 조선조 왕, 왕후, 궁녀의 인간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9,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박지은, 『19세기 조선조 순원왕후와 순명효황후의 인간체제의 심미적 특징』,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한편 생활사 분야의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들이 있다. 이남희, 앞의 논문, 2020; 이남희, 『조선시대 인문자료와 왕실여성의 생활세계』, 『인문학연구』 29,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16) 인간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일 존명만 듯습고 서신 흥 순 못 혀와습더니 오늘 / 늘 긴히 부치을 일이 잇스와 빅 번 밋습고 이 말 / 습이오며 일면부디오니 서신 브치는 것도 네 아니 / 오 옛 사람의괴 죄오나 전일 밋기를 송헌 외숙의 / 으릭 아니오 쯔 영감이 나올 었디 아셔논지 그논 모르 / 오나 나는 유희의 남의 업시 디통을 품은 무 / 부모형데흔 혈단신이 곁혀 스고무친이 / 쥬야 양턴 탄식이더니 영감 선성을 듯고 일가 / 의 감치 아닌 경이 칭던 변치 아니키을 괴약혀더니 / 명되 박혀고 썩을 못 만나 일도의 국가의 망 / 극후은 거시 이 지경 되오니 다시 무슨 말 홀 말습 / 이 업스오며 기시의 망극후읍과 귀구후오미 었디 / 지금 사라 잇다가 울너오시는 말습 드를 줄 / 알아기습논잇가 닉

처음으로 쓴 편지로 비정된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전술하였듯 이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은 단순히 인간의 작성자를 비정하는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해당 인간이 순명효황후와 김상덕이 주고받았던 인간들의 첫 번째 인간이라면 그것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발신자와 수신자 간 첫 편지이기에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조선시대 한글편지’는 해당 인간이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8』의 慶金-19로 소개된 것”으로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었으나 필체와 사연이 순명효황후의 편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개하였다. “평일 존명만 듣고 서신 한 번 못 하였더니, …(중략)… 한 번 본 일도 없으니”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발신자인 순명효황후가 수신자 김상덕에게 처음으로 보내는 언간으로 짐작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 같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험지에서 아무 탈 없이 계시다가 올라오신 일 만분다행하오며”라는 부분에서 착안하여, 본 언간이 1893년 7월 19일에서 1894년 9월 12일까지 감리인천항통상사무를 역임한 바 있는 김상덕에게 보내진 것이며, 시기는 1894년 9월 12일 직후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⁷⁾

이남희는 위 인간의 발수신자가 순명효황후와 김상덕이라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견해를 받아들여 인간의 발신 시기를 재검토하였다. 이남희는 김상덕이 인천부사직에서 경질된 이후 그해 10월 11일 궁내부참의(宮內府參議), 10

말숨은 통곡호을 일이 / 거니와 되져 인천 갓스온 분운호 험지의 일 업 / 시 겨오시다 울너오신 일 만분 다행호으며 이 / 말숨 호읍기 빅 번 난안 슈괴오나 도시 스세가 / 소〃 허믈을 싱각호읍다가 괴회를 노치 / 오면 어느 썩을 브라오며 논변의 방황호 계 / 누을 잡고 말숨 호오릿가 싱각다 못 괴별호오 / 니 유모 말숨 호읍는 것슨 영감 읍의논 / 구호실 수 잇스올 터이니 만일 신청치 아니 / 시면 더욱 브쇼그려 죽을 터이오니 삼낭호읍 / 소셔 빅이스디회호도 이 바긔 업스옵는이 / 다 (1894년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시대 한글편지, https://archive.aks.ac.kr/letter/letter.do#view.do?itemId=letter&gubun=lettername&uppath=&dataId=G002+LET+KSM-XF.1894.0000-20140430.A0003_01 (검색일 2023.07.03)) / 본문에 서술한 현대어 번역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시대 한글편지’의 현대어역을 따랐다.

17) ‘1894년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시대 한글편지, https://archive.aks.ac.kr/letter/popupBasic.do?dataUCI=G002+LET+KSM-XF.1894.0000-20140430.A0003_01 (검색일 2023.07.03) / 이하 날짜 표기는 사료상의 기록을 그대로 표기할 것이나 양력, 음력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부기하도록 하겠다.

월 26일에는 좌부승선(左副承宣)에 임명되었으나, 김상덕이 이미 갑오개혁이 단행되는 와중에 고향인 충청도 보령 공포리로 낙향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발신 시기는 김상덕이 인천에서 돌아와 고향으로 낙향하기 전 궁내부참의로 임명되었던 1894년 10월 11일 이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¹⁸⁾

이렇듯 <평일 존명만>을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첫 번째 인간으로 보는 주장은 필체와 ‘인천, 그리고 전반적인 사연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어강석은 반론을 제기하며, <평일 존명만>이 순명효황후의 인간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한다. 어강석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인간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일면부지의 관계이며, 발신자가 ‘승현이의 외조부’¹⁹⁾라는 연결고리로 제시하고 있다. 황태자비가 종6품 직각으로 물러난 관리에게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는 어렵다. 둘째, 발신자는 수신자를 ‘영감’이라고 칭하고 있다. ‘영감’은 조선시대 종2품~정3품의 당상관 품계를 가진 관인을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 종6품의 규장각 직각으로 있었던 김상덕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호칭이다. 셋째, “또 영감이 나를 어찌아셨는지 그것은 모르오나”라고 되어 있는데, 관직생활을 영위하였던 김상덕이 황태자비를 몰랐을 리 없다. 넷째, 해당 인간의 필체가 기존의 순명효황후의 인간으로 비정된 인간과 상이하다.²⁰⁾

<평일 존명만>으로 시작하는 인간의 작성자에 대한 논의는 이처럼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평일 존명만>의 작성자를 순명효황후로 볼 수 있다는 견해에 따라 반론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평일 존명만>의 작자 비정과 관련한 인간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필체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18) 이남희, 앞의 논문, 235쪽.

19) 원문에서는 “승현 외숙”이라고 쓰여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시대 한글편지의 현대어 역는 이를 “승현 외숙”으로 보았다. 그러나 어강석은 이를 “승현이의 외조부”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번역을 따랐다.

20) 어강석, 앞의 논문, 80~87쪽.

1) 언간 <평일 존명만> 내용상의 검토

먼저 발신자가 수신자를 지칭한 “영감”이라는 호칭에 대한 것이다. 1990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출판한 『고문서집성 8 - 광주 안씨·경주김씨편 -』에 의하면 보령 천궁 경주김씨 직각 김면주 종가에 소개되어 있는 김상덕의 관직 임명에 따른 고신 및 칙지는 총 14건이다.²¹⁾ 한편 『승정원일기』의 김상덕에 대한 관직 임명 기사는 62건으로, 고신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승정원일기』 김상덕 관직 임명 기사와 고신 및 칙지 여부

| 순서 | 임명 날짜 | 관직명 | 고신 및 칙지 여부 |
|----|---------------|--------------------------------|-------------|
| 1 | 1886년 7월 14일 | 내부부(內務府) 부주사(副主事) | ○ |
| 2 | 1887년 11월 11일 | 가상존호도감(加上尊號都監) 감조관(監造官) | |
| 3 | 1887년 11월 14일 | 부사용(副司勇) | ○(고신 상 부사과) |
| 4 | 1888년 1월 | | ○(부사과) |
| 5 | 1888년 7월 10일 | 전생서(典牲署) 주부(主簿) | |
| 6 | 1888년 8월 28일 |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 |
| 7 | 1888년 8월 29일 | 부사직(副司直) | |
| 8 | 1888년 9월 | 문과 병과 급제 | ○ |
| 9 | 1888년 11월 16일 | 홍문관(弘文館) 부수찬(副修撰) | |
| 10 | 1888년 11월 22일 | 문신겸선전관 | |
| 11 | 1888년 11월 29일 | 부사과(副司果) | |
| 12 | 1888년 12월 5일 | 병조정랑(兵曹正郎) | |
| 13 | 1888년 12월 7일 | 서학교수(西學教授) | |
| 14 | 1889년 2월 15일 | 홍문관 수찬(修撰) | ○ |
| 15 | 1889년 5월 22일 | 주진독리통상사무(駐津督理通商事務) 종사관(從事官) | |

21) '김상덕,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국고문서자료관, <https://archive.aks.ac.kr/search/list.do?q=query%E2%80%A0%EA%B9%80%EC%83%81%EB%8D%95&secId=anci> (검색일 2023.07.05.)

| | | | |
|----|---------------|-------------------|----------|
| 16 | 1890년 4월 10일 | 규장각(奎章閣) 직각(直閣) | |
| 17 | 1890년 4월 10일 | 검교서관((校書館) 교리(校理) | ○(고신 2월) |
| 18 | 1890년 7월 18일 | 문신결선전관 | |
| 19 | 1890년 9월 10일 | 사복시(司僕寺) 정(正) | |
| 20 | 1890년 9월 10일 | 검직각(直閣) | |
| 21 | 1890년 9월 13일 | 홍문관 교리(校理) | |
| 22 | 1890년 10월 9일 | 검교(檢校) | |
| 23 | 1890년 10월 20일 | 홍문관 응교(應敎) | |
| 24 | 1890년 10월 21일 | 사간원(司諫院) 사관(司諫) | |
| 25 | 1890년 11월 13일 | 직각 검교서관 교리 | |
| 26 | 1891년 5월 13일 | 사헌부 장령(掌令) | |
| 27 | 1891년 5월 13일 | 검직각 | |
| 28 | 1891년 6월 1일 | 예조좌랑(禮曹佐郎) | ○ |
| 29 | 1891년 6월 4일 | 검직각 | |
| 30 | 1891년 6월 30일 | 검교 | |
| 31 | 1891년 7월 21일 | 사간원 사간 | |
| 32 | 1891년 7월 24일 | 사헌부 집의(執義) | |
| 33 | 1891년 7월 26일 | 홍문관 응교 | |
| 34 | 1891년 9월 3일 | 통위영군사마(統衛營軍司馬) | |
| 35 | 1891년 9월 7일 | 응교 | |
| 36 | 1891년 9월 23일 | 부사직 | |
| 37 | 1892년 1월 27일 | 홍문관 교리 | |
| 38 | 1892년 2월 10일 | 홍문관 수찬 | ○ |
| 39 | 1892년 2월 12일 | 부사과 | |
| 40 | 1892년 2월 24일 | 홍문관 수찬 | |
| 41 | 1892년 3월 7일 | 부사과 | |
| 41 | 1892년 3월 26일 | 홍문관 부응교(副應敎) | |
| 43 | 1892년 4월 7일 | 부사직 | |
| 44 | 1892년 5월 3일 | 시강원 필선 | ○ |
| 45 | 1892년 5월 10일 | 사헌부 지평 | |

| | | | |
|----|---------------|------------------------------------|---|
| 46 | 1892년 6월 1일 | 통례원(通禮院) 상례(相禮) 검필선 | |
| 47 | 1892년 6월 5일 | 검교 | |
| 48 | 1892년 6월 10일 | 형조참의(刑曹參議) | |
| 49 | 1892년 6월 10일 | 부호군 | |
| 50 | 1892년 6월 12일 | 동부승지 | |
| 51 | 1892년 6월 29일 | 부호군 | |
| 52 | 1892년 윤6월 5일 | 우부승지 | |
| 53 | 1892년 윤6월 7일 |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 | |
| 54 | 1892년 7월 17일 | 돈녕부(敦寧府) 도정(都正) | |
| 55 | 1892년 7월 25일 | 부호군 | |
| 56 | 1892년 10월 23일 | 기사장(騎士將) | |
| 57 | 1893년 1월 13일 | 동부승지 | |
| 58 | 1893년 1월 19일 | 부호군 | |
| 59 | 1893년 7월 19일 | 인천부사(仁川府使) 감리인천항통상사무(監理仁川港通商事務) | ○(교지 3건) 인천진병마첨절제사토포사 인천항통상사무 인천도호부사 |
| 60 | 1894년 10월 11일 | 궁내부(宮內府) 참의(參議) | ○(칙지) |
| 61 | 1894년 10월 26일 | 승선원(承宣院) 좌부승선 | ○(칙지) |
| 62 | 1894년 11월 15일 | 첨지중추원사 | |

김상덕은 1886년 내무부 부주사로 관직생활을 시작해 1894년 인천 부사직에서 경질될 때까지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과에 급제하기 전부터 관직을 임명받았으며, 급제한 후에는 홍문관·규장각·사간원·사헌부·승정원 등은 물론이고, 병조정랑·예조좌랑·통위영 군사마 등 다양한 관직에 임명되었다. 김상덕의 관직 임명 기록은 잦은 관직 교체와 겸직이라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김상덕이 주진독리통상사무의 종사관으로 청의 천진(天津)에 머물 때도 병조정랑직을 역임하고 있었다는 점과 같은 기간 규장각 직각에 선발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²²⁾

22) 『승정원일기』 제 2988책, 고종 26년 8월 26일; 『승정원일기』 제 2996책, 고종 27년 4월 10일.

한편 김상덕이 오른 최고위 관직의 관품은 정3품이었다. 1892년 이후 역임했던 형조참의직과 승정원의 동부승지 및 우부승지직, 성균관 대사성, 돈녕부 도정, 기사장, 실제 관직을 역임하지는 않았으나 1894년 10월 11일 기사에 등장하는 첨지중추원사 등의 관직의 품계는 모두 정3품에 해당한다.²³⁾ 또한 김상덕은 이미 1889년 2월 15일 홍문관 수찬에 임명될 때 관품이 정3품 하계인 통훈대부(通訓大夫)였으며, 1892년 세자시강원의 필선을 역임한 뒤에는 부모 대제(耐廟大祭)의 상례 수행으로 가자(加資)되어 1893년 인천 부사직에 임명될 때에는 정3품의 품계 통정대부(通政大夫)였다.²⁴⁾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1894년 시점에 김상덕은 역임했던 관직과 관품에 있어서 모두 정3품 이상에 해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평일 존명만>의 발신자가 수신자인 김상덕을 “영감”이라 칭한 것은 김상덕의 지위에 걸맞은 호칭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순명효황후와 김상덕이 “일면부지”였다거나 “영감이 나를 어찌하셨는지 그것은 모르오나”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편지는 특정한 상대를 대상으로 쓰는 글이다. 다시 말해 편지를 쓸 때 작성자는 상대를 특정하고, 그에 맞춰 글을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편지글의 독해에는 작성자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주관에 담겨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언간의 첫머리에 순명효황후는 “평일 존명만 듣고 서신 한 번 못하였다니”라고 밝혔다. 또한 비록 자신은 김상덕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가 “송현 외숙”보다 아랫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전부터 알려져 있는 명성을” 들었다고 적었다. 이는 순명효황후가 가지고 있는 김상덕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즉 순명효황후는 김상덕의 존재를 잘 알고는 있었었지만, 자신이 실제로는 김상덕을 대면한 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해

23) 『승정원일기』 제 3051책, 고종 31년 10월 11일.

24) “1889년 김상덕(金商惠) 고신(告身)”, 보령 천궁 경주김씨 직각 김면주 종가,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archive.aks.ac.kr/link.do?dataUCI=G002+AKS+KSM-XA.1889.1111-20101008.B007a_008_00021_XXX (검색일 2023.07.05); 『승정원일기』 제 3022책, 고종 29년 6월 10일; “1893년 김상덕(金商惠) 고신(告身)”, 보령 천궁 경주김씨 직각 김면주 종가,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archive.aks.ac.kr/link.do?dataUCI=G002+AKS+KSM-XA.1893.1111-20101008.B007a_008_00030_XXX (검색일 2023.07.05)

당 인간으로는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는 있겠으나, 김상덕이 순명효황후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를 논하는 근거로 보긴 어려운 것이다.

또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순명효황후가 편지의 수신자인 김상덕과 자신의 연결고리를 “송현 외숙”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순명효황후는 김상덕에게 “긴히 부탁할 일”이 있어 편지를 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러한 부탁을 하는 것이 “백 번 낮이 붉어지며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김상덕이 자신의 부탁을 반드시 들어주기를 바란다는 간곡한 뜻을 내비쳤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대에게 첫 편지를 쓰면서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순명효황후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명효황후는 김상덕이 사는 고을에서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반드시 얻어내야만 했다. 그렇기에 “송현 외숙”이라는 인물을 연결고리를 내세워 김상덕과 자신이 그다지 소원한 사이가 아님을 알리며, “부모형제도 없는 혈혈단신인” 자신에게 김상덕은 “한 가족 못지않은 정이”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여야만 했던 것이다.²⁵⁾

2) 인간 <평일 존명만> 필적 검토

어강석의 연구는 <평일 존명만> 인간과 순명효황후의 다른 인간들을 비교하여 필적이 다름을 지적한다. 비교대상이 된 단어는 “기별”, “다시”, “썩”, “말슴” 등이다.²⁶⁾ 어강석은 인간에 표현된 필적에 대해 획의 강약에 따른 길이와 굵기, 한 단어를 흘려 쓸 때의 연결성과 단절성의 개인적 습관, 자간 등의 미세한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필적은 문자를 배우고 익히며 오랜 시간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고유의 습성으로, 두 사람이 각각 무의식적으로 썼을 경우 필적은 다르게 나타난다.²⁷⁾

25) 순명효황후의 유일한 친형제라 할 수 있는 민영익(閔泳翊)은 1880년대 말 원세개(袁世凱)에 맞선 반청정책을 추진하다 여의치 않자 출국하여 홍콩과 상해 등지에 머물렀다(노대환, 「閔泳翊의 삶과 정치활동」, 『韓國思想史學』 18, 韓國思想史學會, 2002, 487쪽).

26) 어강석, 앞의 논문, 82~86쪽.

그러나 동일인이라고 해서 항상 동일한 필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동일인이 다른 필기 조건에서 같은 글자를 쓰는 경우에도 동일하지 않은 필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필적이 동일인물의 필적인지를 검증하고 감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인물의 많은 대조필적을 확보해야 하며, 대조필적의 범위를 해당 인물만이 아닌 여타의 인물까지 특정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²⁸⁾ 여기서는 검토 대상인 언간 <평일 존명만>과 순명효황후의 기타 언간, 그리고 대조필적의 범위를 넓혀 명성황후의 언간을 함께 비교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 표는 언간 <평일 존명만>과 기타 순명효황후의 언간 중에서 다수의 언급이 확인되는 ‘말’자를 비교한 것이다.

[표3] 언간 <평일 존명만>과 기타 순명효황후의 언간 중 ‘말’자 비교

| 언간명 | <평일 존명만>(1) | <평일 존명만>(2) | <평일 존명만>(3) | <평일 존명만>(4) | <평일 존명만>(5) |
|-------|--------------|-------------------|-------------------|-------------------|-------------------|
| 언간 자료 | | | | | |
| 언간명 | <평일 존명만>(6) | <평일 존명만>(7) | <평일 존명만>(8) | <규리 소찰이> | <일즉 황송 등>(1) |
| 언간 자료 | | | | | |
| 언간명 | <일즉 황송 등>(2) | <오릭간만의 봉서 보습고>(1) | <오릭간만의 봉서 보습고>(2) | <거년의 소식 듯스온 후>(1) | <거년의 소식 듯스온 후>(2) |
| 언간 자료 | | | | | |

[표3]에서 <평일 존명만> (1)~(8)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작성한 하나의 언간임에도 다양한 형태의 필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음 ‘ㅁ’의











27) 조지훈·한승희, 「문장단위의 필적 향상성 연구」, 『과학수사학회지』 8(4), 한국과학수사학회, 2014, 240쪽; Richard Saferstein, 『수사와 과학 : 법과학에 대한 소개』, 박성우·홍성욱 역, 한림원, 2005, 452쪽, 김정호, 「한글 필적감정의 문제점」, 『법조』 57(6), 법조협회, 2008, 231쪽에서 재인용.

28) 김정호, 앞의 논문, 259쪽.

윗부분 획이 더러는 붙기도 하고, 더러는 떨어져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ㅁ’은 순명효황후의 기타 언간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을 언간 별로 분류해보면, ‘ㅁ’의 윗부분 획이 떨어진 글자는 <평일 존명만>(2), <평일존명만>(3), <평일존명만>(6), <일츄 황송 등>(2), <거년의 쇼식 듯스온 후>(2)이고, 윗부분의 획이 붙었으나 위의 글자와 이어져 빠침이 있으면서 아랫부분의 획이 벌어져 있는 것은 <평일 존명만>(1), <평일 존명만>(5), <평일 존명만>(7), <평일 존명만>(8), <규리 소찰이>, <일츄 황송 등>(1)이다. 그러나 위 글자의 받침 ‘ㄹ’은 모두 이어서 흘러 쓴 획으로 대체로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순명효황후의 ‘말’자는 명성황후의 ‘말’자와 비교하면 그 차이를 더욱 확연히 볼 수 있다. 다음 표는 명성황후 언간에서 확인한 ‘말’자를 비교한 것이다.²⁹⁾

[표4] 명성황후의 언간 중 ‘말’자 비교

| | | | | | |
|-------|---|---|---|---|---|
| 언간명 | 1890년 명성황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5) | 1892년 명성황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8) | 명성황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51) | 명성황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52) | 명성황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58) |
| 언간 자료 |  |  |  |  |  |
| 언간명 | 명성황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59) | 명성황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60) - (1) | 명성황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60) - (2) | 명성황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61) | 명성황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63) |
| 언간 자료 |  |  |  |  |  |


명성황후의 언간에서 볼 수 있는 ‘말’자의 자음 ‘ㅁ’은 거의가 한 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음 ‘ㅏ’의 ‘ㅣ’이 길게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29) 명성황후의 언간명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시대 한글편지의 표기를 따랐다.

자음과 모음의 형태는 순명효황후의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다음의 [표5]는 역사나 순명효황후의 인간에서 다수의 사용을 보이고 있으며, 획수가 많은 ‘평’자를 비교한 것이다.






[표5] 인간 <평일 존명만>과 기타 순명효황후의 인간 중 ‘평’자 비교

| 인간명 | <평일 존명만> | <규리 소찰이> | <작년 일츠 봉서 보온 후> | <일츠 황송 둥>(1) | <일츠 황송 둥>(2) |
|-------|---|---|---|---|---|
| 인간 자료 |  |  |  |  |  |
| 인간명 | <봉서 보옵고>(1) | <봉서 보옵고>(2) | <거년의 쇼식 듯스온 후>(1) | <거년의 쇼식 듯스온 후>(2) | <냥츠 봉서 보옵고> |
| 인간 자료 |  |  |  |  |  |





인간 <평일 존명만>과 <규리 소찰이>, <거년의 쇼식 듯스온 후>(1)의 자음 ‘ㅍ’이 가장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으며, <일츠 황송 둥>(2)도 자음의 쓰임 방식이 일부 유사하다. 자음이 <작년 일츠 봉서 보온 후>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은 <봉서 보옵고>(1), <냥츠 봉서 보옵고>이고, ‘ㅍ’이 정자에 가깝게 쓰인 것은 <일츠 황송 둥>(1)이 유일하다. 모음의 형태는 대체로 유사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평일 존명만>과 <규리 소찰이>가 두 획으로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위 [표5]의 비교 대상이 된 인간들은 <평일 존명만> 인간을 제외하면 모두 순명효황후의 인간으로 비정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위 [표5]는 한 사람이 쓴 편지라 해도 다양한 필적을 보이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특징은 명성황후의 인간에서 볼 수 있는 ‘평’자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한 차이를 알 수 있다.

다음 [표6]와 [표7]은 명성황후 인간의 ‘평’자를 대조하였으며, 이를 순명효황후의 ‘평’자를 비교한 것이다.

[표6] 명성황후의 1883년 인간 1건과 1894년도의 인간 중 '평'자 비교

| | | | | | |
|-------|---|---|---|---|---|
| 인간명 | 1883년 명성황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 | 1894년 명성황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1) | 1894년 명성황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4) | 1894년 명성황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6) | 1894년 명성황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7) |
| 인간 자료 |  |  |  |  |  |

[표7] 명성황후의 1883년 인간 1건과 1894년도의 인간 중 '평'자 비교

| | | | | |
|-------|---|---|---|---|
| 인간명 | <평일 존명만> | <봉서 보습고>(1) | 1883년 명성황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 | 1894년 명성황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1) |
| 인간 자료 |  |  |  |  |

[표6]를 보면, 명성황후의 '평'자는 작성 시기가 다르고, 각기 다른 인간에 쓰인 글자임에도 비교적 유사한 형태로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명성황후의 인간은 순명효황후의 것보다 내용이 적고, 길이가 길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그와 같이 다른 필기조건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표7]을 보면 두 사람의 필적은 모음의 형태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자음의 표기 방식이 확연히 차이를 볼 수 있다. 순명효황후의 'ㅍ'은 화살표의 방향에서 볼 수 있듯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명성황후의 'ㅍ'은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사람의 인간에서 'ㄱ'자를 발췌하여 비교한 다음의 [표8]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8] 명성황후와 순명효황후의 인간 중 'ㄱ'자 비교

| | | | | |
|-----|----------|------------|--------------------------|----------------------------|
| 인간명 | <평일 존명만> | <작년 일차 봉서> | 1883년 명성황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 | 1894년 명성황후가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1) |
|-----|----------|------------|--------------------------|----------------------------|



위의 [표8]을 보면 순명효황후의 ‘기’는 자음과 모음 사이가 공간이 명성황후의 ‘기’자보다 상대적으로 넓다. 획의 방향이나 쓰는 방식은 다소 비슷하듯 보여도 다른 두 사람이 쓰는 경우에는 이렇듯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듯 필적은 한 사람이 썼더라도 다양한 형태를 보이며, 살펴본 바 순명효황후의 필적도 한 편지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띠었다. <평일 존명만> 인간에서 나타나는 자형과 순명효황후의 기타 인간에서 나타나는 자형은 유사한 것도 있었고, 유사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그러나 두 범주의 인간들은 유사한 자형별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한 사람이 다양한 형태로 같은 글자를 쓰는 방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평일 존명만>과 기타 인간의 차이는 명성황후의 인간과 비교하였을 때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평일 존명만>의 필적이 순명효황후의 기타 인간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평일 존명만>의 작성자는 순명효황후로 볼 수 있다.

3. 순명효황후와 김상덕의 관계

순명효황후는 1872년 10월 출생하여 1882년 순종의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이후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며 황태자비가 되었으나 순종이 황제에 즉위하기 전인 1904년 11월 5일 3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순명효황후는 삶의 대부분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질곡의 역사가 관통하는 왕실의 한복판에서 지냈다. 1882년 임오군란에는 궤를 습격한 병사들로 인해 시어머니인 명성황후가 피신하는 일을 겪었고, 1884년 갑신정변으로 아버지인 민태호(閔台鎬)를 잃었다. 1895년에는 결국 일본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었다. 순명효황후는 이렇듯 우여곡절의 연속인 제 삶에 대한 상념을 김상

덕에게 보내는 인간에 여실히 드러냈다.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유달리 지통을 품은, 부모형제도 없는 혈혈단신에 겸하여 사고무친한 사람이 밤낮으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더니, …(중략)… 운수가 박하고 때를 못 만나 하루아침에 국가의 망극함이 이 지경이 되오니, 다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으며, 그때의 망극함과 기구함이 어찌 지금 살아 있다가 지금 올라오시는 말씀 들을 줄 알았겠습니까.”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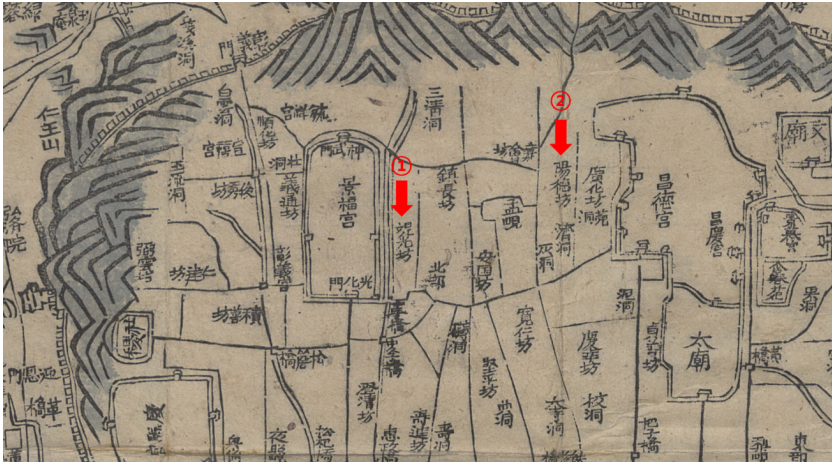
순명효황후의 이 같은 감정표현은 여타 왕비들의 인간과는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었다. 순명효황후가 인간에서 드러낸 감정은 오히려 왕비들이 가까운 가족들에게 보낸 인간과 유사한 감정 표현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당시 세자빈으로서 친척들의 궁중 출입마저 엄단했으며, 본가에 편지를 보내는 일도 안부를 묻는 것 외엔 삼갔다던 순명효황후가 조정 대신에 불과하였던 김상덕에게 어찌서 그와 같은 절절한 편지를 보냈던 것일까. 순명효황후 인간의 목적을 이해하고, 인간에 드러나 있지 않은 행간의 맥락을 읽기 위해서는 순명효황후와 김상덕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순명효황후는 1894년 김상덕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썼다. 그것이 <평일 존명판>으로 시작하는 인간이다. 순명효황후는 인간에서 “송현 외숙”을 거론하며, 자신이 알기로는 김상덕이 “송현 외숙보다 아랫사람”이지 않느냐고 하였다. 순명효황후가 다른 부가 정보 없이 “송현 외숙”이라고만 언급한 것은 자신이 그렇게 언급하여도 “송현 외숙”이 누구인지가 충분히 설명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김상덕도 “송현 외숙”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순명효황후가 “송현 외숙”이라 부를 만한 이는 누구였을까.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의 조선시대 한글편지의 주석은 “송현”이 지명 ‘송현(松峴)’이며, 종로구 송현동에 있는 고개 이름을 일컫는다고 소개

30) ‘1894년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시대 한글편지, https://archive.aks.ac.kr/letter/popupBasic.do?dataUCI=G002+LET+KSM-XF.1894.0000-20140430.A0003_01 (검색일 2023.07.05)

한다.³¹⁾ 종로구의 송현동은 조선시대에는 한양 5부 중 북부(北部)의 관광방(觀光坊)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순명효황후는 양덕방(陽德防) 계동(桂洞)에서 태어났다. 양덕방은 관광방과 마찬가지로 북부에 속해있었으며, 다음 [그림1]과 같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림1] 「성부총도(城部摺圖)」, 1861년(철종 12), ① 관광방 ② 양덕방
출처: 고려대학교 도서관 고지도 컬렉션

“송현 외숙”은 순명효황후가 태어나 입궐하기 전까지 자랐을 것으로 보이는 양덕방 계동에서 가까운 곳인 관광방 송현에 살던 인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순명효황후가 ‘외숙’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

순명효황후의 아버지 민태호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다. 순명비의 묘지문에 따르면, 순명효황후의 “전모(前母)는 정경 부인(貞敬夫人)으로 추증된 윤씨(尹氏)인데 부사(府使) 윤식의(尹稷儀)의 딸이고, 어머니는 정경 부인 송씨(宋氏)인데 목사(牧使)로 내부협판(內部協辦)에 추증된 송재화(宋在華)의

31) ‘1894년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시대 한글편지, https://archive.aks.ac.kr/letter/popupBasic.do?dataUCI=G002+LET+KSM-XF.1894.0000-20140430.A0003_01 (검색일 2023.07.05)

딸이며, 계모(繼母)인 정경 부인 남씨(南氏)는 의관(議官) 남명희(南命熙)의 딸이다.”³²⁾ 즉 순명효황후의 외할아버지는 ① 윤직의 ② 송재화 ③ 남명희 총 세 사람이다. 외숙은 어머니의 남자형제이므로 이 셋의 아들 중 하나가 ‘송현 외숙’이 될 것이다. 위 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9]과 같다.

[표9] 민태호의 부인들과 아버지 및 형제

| 순명효황후와의 관계 | 성 | 부(父) | 형제 |
|------------|--------|----------|-------------------|
| 전모(前母) | 윤씨(尹氏) | 윤직의(尹稷儀) | 윤익(尹瀆) |
| 어머니(母) | 송씨(宋氏) | 송재화(宋在華) | 송태현(宋泰鉉) |
| 계모(繼母) | 남씨(南氏) | 남명희(南命熙) | ?) ³³⁾ |

[표9]에서 보듯, 기록에 따라 추정할 수 있는 순명효황후의 외숙 후보는 윤익과 송태현이다. 윤직의의 아들 윤익(1849~1920)은 1880년 증광시에 급제한 이후 1885년 용강현령(龍岡縣令)·응교(應敎) 등을 역임하였다.³⁴⁾ 용강현령에 임명되기 이전에는 승정원 주서(注書)와 성균관 전적(典籍), 사간원 정원(正言) 등의 관직을 거쳤다.³⁵⁾ 『국조방목(國朝榜目)』 상의 윤익의 과거 합격 기록에서는 거주지가 ‘미상(未詳)’으로 나오나, 윤직의의 과거 합격 기록을 보면 거주지가 ‘한성(京)’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윤익도 한성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윤익은 1885년 용강현령에 임명된 이후 1886년 부안 현감(扶安縣監) 김규승(金奎升)과 직을 서로 바꾸라는 명을 끝으로 『승정원일기』 상에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각사등록(各司謄錄)』을 보면 윤익이 부안 현감으로 부임하기 전인 1886년 7월 1일 경중(京中)의 본가에서 사망하였다

32) 『고종실록』 권43, 고종 42년 1월 4일 양력.

33) 남명희의 아들은 확인되는 정보가 거의 없다.

34) ‘尹瀆’,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front/dirSer/ppl/pplView.aks?pplId=PPL_6JOd_A9999_1_0032069&curSetPos=1&curSPos=0&category=dirSer&isEQ=true&kristalSearchArea=B (검색일 2023.04.10)

35) 『승정원일기』 제 2913책, 고종 20년 6월 25일; 제 2914책, 고종 20년 7월 29일; 제 2918책, 고종 20년 11월 27일.

는 기록이 확인된다.³⁶⁾ 따라서 윤익은 순명효황후가 태어났을 당시 또는 세자빈으로 책봉되었을 무렵인 1882년에는 한성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송현에 거주하는 외숙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는 1886년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1894년 서신을 작성할 당시 8년 전에 사망한 인물을 구태여 거론하였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윤익은 『승정후5경진경과증광문무과전시방목(崇禎後五庚辰慶科增廣文武科殿試榜目)』에 의하면 기유(己酉)년 생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1849년이다.³⁷⁾ 따라서 1852년생인 김상덕에게 윤익은 적어도 나이 상으로는 아랫사람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김상덕과 윤익은 연결고리가 될 만한 기록이 없어 ‘송현 외숙’ 후보에 윤익은 적당하지 않은 인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송재화의 아들 송태현(1852~1917)이다. 송태현은 1885년 진사시에 합격해 진사로서 종9품의 임시 관직인 가감역관(假監役官), 종9품의 무관 부사용(副司勇) 등의 하급관직을 역임하였고, 1891년부터는 6품인 상서원 별제(別提), 빙고 주부(主簿) 등의 직을 거치다 1899년 황태자비궁 대부(大夫)가 되었다.³⁸⁾ 이후에는 1902년 11월 비서원 승, 1902년 12월에는 다시 황태자비궁 대부가 되었으며, 1904년 6월 법부 참서관이 되었다.³⁹⁾ 이후 송태현은 1904년 9월 한성부 관윤이 되었는데, 동년 9월 28일(양력 11월 5일) 순명효황후가 사망하면서 종척집사(宗戚執事)를 맡는다.⁴⁰⁾

송태현은 진사시 합격자로서 상당기간(1885~1891)을 낮은 관직들을 전전하였다. 진사로 있는 동안 문과 별시에 응시할 기회를 얻었다는 기록은 다수 있으나 입격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문과를 보지는 않은 듯하며,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세자빈(또는 황태자비)의 인척이었음에도 비중 있는 관직에

36) 『각사등록(各司廳錄) : 全羅道篇1』, 湖南啓錄 4, 光緒十二年七月二十七日, “身死於京中本家是如”
 37) 『승정후5경진경과증광문무과전시방목(崇禎後五庚辰慶科增廣文武科殿試榜目)』(국립중앙도서관 일산구 6024-111)/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윤익의 생년을 적고 있지 않으나, 위의 자료는 해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문과 방목에서 확인한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38) 『승정원일기』 제 3011책, 고종 28년 7월 29일; 제 3109책, 고종 36년 5월 27일(양력 7월 4일).
 39) 『승정원일기』 제 3152책, 고종 39년 11월 28일(양력 12월 27일); 제 3153책, 고종 39년 12월 1일(양력 12월 30일); 제 3172책, 고종 41년 6월 14일(양력 7월 26일).
 40) 『승정원일기』 제 3175책, 고종 41년 9월 14일(양력 10월 22일); 제 3175책, 고종 41년 9월 28일(양력 11월 5일).

나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송태현의 이력에서 주목되는 것은 송태현이 1899년부터 순명효황후가 사망하는 1904년까지 황태자비궁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대부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순명효황후가 사망한 후에는 국상에서 종척집사를 맡았다는 점이다. 이는 외숙인 송태현이 지근거리에서 조카 순명효황후를 보필하였음을 말해준다. 해당 시기는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그 일로 몸과 마음을 모두 다친 순명효황후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시기였다. 외숙인 송태현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순명효황후에게 힘이 되었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순명효황후의 외숙 송태현은 과거 응시 당시 거주지는 춘천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사로서 여러 하급관직을 역임하였으므로 한성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제국기 호적인 1906년송태현의 호적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해당 호적에 따르면, 송태현의 거주지는 한성부 북서 관광방 송현계 송현동 20통 8호이다.⁴¹⁾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송현’에 사는 외숙은 송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송태현과 김상덕은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 김상덕과 송태현은 1852년생으로 같은 해 태어났다. 그러나 순명효황후는 김상덕이 송태현보다 “아랫사람”이라 칭했다. 두 인물이 태어난 일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 나이로 그들의 관계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같은 년생인 두 사람의 나이를 순명효황후가 구태여 구분하여 인식하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순명효황후가 송태현과 김상덕 두 사람의 관계를 위 아래로 칭하고, 그를 인식하고 있었던 데는 나이 외에 더 내밀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국고문서자료관은 보령 천궁 경주김씨 직각 김면주 증가가 소장하고 있는 김상덕과 관련한 여러 고문서를 공개하고 있

41) 한국학중앙연구원 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http://waks.aks.ac.kr/dir/achieveltem.aspx?secType=%ea%b3%a0%ec%84%9c%2%b7%ea%b3%a0%eb%ac%b8%ec%84%9c&dirCate=&ganada=&styleType=&Word=&sort=&fq=%ed%86%b5%ed%95%a9%ea%b3%bc%ec%a0%9cID_ext%3aAKS-2009-JB-2001_T&curPage=25&pageSize=10 (검색일 2023.07.06)

다. 그런데 이 고문서들 중 김상덕과 송태현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문서가 있다. ‘김상덕(金商憲) 세계단자(世系單子)’로 명명되어 있는 문서이다. 해당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故室宋氏 本鎮川
 父在瑗祖文晉曾祖達休外祖南陽洪在達
 監役 贈秘書丞 贈掌禮
 室人韓山李氏
 父義直祖馨萬曾祖東述外祖慶州李希遠
 稼牧之後牧隱長子派”⁴²⁾

위 문서는 김상덕이 자신의 계배(繼配), 즉 죽은 후실 진천 송씨(鎭川宋氏)와 삼배(三配) 한산이씨(韓山李氏)의 사조(四祖)를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김상덕의 죽은 후실 진천 송씨의 기록이다. 송씨의 아버지는 감역(監役)을 지낸 송재원(宋在瑗)이다.⁴³⁾ 그리고 이 송재원이 바로 순명효황후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송재화의 동생이다. 그런데 또 다른 세계단자에서 김상덕은 송태현이 송재화가 아닌 송재원의 아들이라고 적었다.⁴⁴⁾ 대한제국기 1906년 호적에 따르면, 송태현의 아버지는 송재화이나 생부는 송재원이다. 즉 송태현은 송재화의 양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해당 자료에서 김상덕은 자신을 송태현 옆에 “女金○○”로 기재했다. 따라서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을 일컬어 “송현 외숙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칭한 것은 그가 송태현의

42) “김상덕(金商憲) 세계단자(世系單子)”, 보령 천궁 경주김씨 직각 김면주 종가,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archive.aks.ac.kr/link.do?dataUCI=G002+AKS+KSM-XG.0000.1406-20190131.B007a_000_B02700195 (검색일 2023.07.06)/ 밑줄은 필자의 강조.

43) 『승정원일기』에서도 송재원이 가감역관을 지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승정원일기』 제 2920책, 고종 21년 2월 17일)

44) 해당 기록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국고문서자료관의 ‘김상덕(金商憲) 세계단자(世系單子)’ 중 김상덕이 진천 송씨의 세계보(氏世譜)를 작성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덕(金商憲) 세계단자(世系單子)”, 보령 천궁 경주김씨 직각 김면주 종가,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archive.aks.ac.kr/link.do?dataUCI=G002+AKS+KSM-XG.0000.1406-20190131.B007a_000_B02700199 (검색일 2023.07.06)).

친누이인 송씨와 혼인 한 송태현보다 손아랫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⁴⁵⁾

이렇듯 순명효황후와 김상덕은 족보상으로는 이모부와 조카의 관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순명효황후는 김상덕에게 “부모형제도 없는 혈혈단신”의 자신이 그에게 “한 가족 못지않은 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체 인간에서 읽히는 바와 같이 심리적으로 크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송태현이 순명효황후가 사망할 때까지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였다는 점과도 맥락을 같이하며,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보아 순명효황후는 자신의 생모인 송씨의 가족들, 즉 외가 식구들에게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살펴보았듯 순명효황후는 친척은 물론이고 가족들과도 거리를 두며 살았다. 그런데 그런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김상덕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는 것을 매우 아쉬워하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다시 벼슬을 하기를 간청하였으며, 자신과 연락을 지속해줄기를 바라는 편지들을 보냈다.⁴⁶⁾ 순명효황후의 김상덕에 대한 기대감은 단순한 외척에 대한 의지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순명효황후는 김상덕과 자신이 비록 외척의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그가 조정에 나와 “국사(國事)를 위하여 신명을 아끼지” 말기를 바랐다.⁴⁷⁾ 그러한 까닭은 무엇일까.

1894년 순명효황후는 김상덕에게 첫 편지를 보냈다. 순명효황후는 김상덕에게 그의 고을에서 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부탁하였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때 시작되어 순명효황후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지속

45) 『경주김씨태사공파대동보(慶州金氏太師公派大同譜)』에도 김상덕에게 세 명의 부인이 있었음이 확인된다(『경주김씨태사공파대동보(慶州金氏太師公派大同譜)』 권3, 362~363쪽).

46) ‘1896년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시대 한글편지, https://archive.aks.ac.kr/letter/letter.do#view.do?itemId=letter&gubun=lettername&uppath=&dataId=G002+LET+KSM-XF.1896.0000-20140430.A0003_02 (검색일 2023.08.14); ‘1897년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시대 한글편지, https://archive.aks.ac.kr/letter/letter.do#view.do?itemId=letter&gubun=lettername&uppath=&dataId=G002+LET+KSM-XF.1897.0000-20140430.A0003_04 (검색일 2023.08.14).

47) ‘1902년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시대 한글편지, https://archive.aks.ac.kr/letter/letter.do#view.do?itemId=letter&gubun=lettername&uppath=&dataId=G002+LET+KSM-XF.1902.0000-20140430.A0003_08 (검색일 2023.07.10).

되는 이들 사이의 편지 왕래가 1894년 10월경 시작되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해당 시점은 1894년 7월 23일(음력 6월 21일)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흥선대원군을 내세워 정국을 주도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⁴⁸⁾

일본의 경복궁 점령과 흥선대원군의 등장으로 명성황후를 보좌하던 민씨(民氏) 일족들은 취립을 일삼고, 백성들을 학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유배에 처해졌다.⁴⁹⁾ 고종과 왕실 전체를 비롯하여 명성황후 본인도 호위를 명목으로 한 일본군의 감시 하에서 거의 포로와 같은 상태로 외부와의 연락이 용이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⁵⁰⁾ 민응식(閔應植)의 아들인 민병승(閔丙昇)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명성황후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명성황후는 ‘아직까지는 별 일이 없으나 하루하루 위험한 일이 연이으며, 이 자리를 보전 못할 뻔하기가 몇 번이며, 어디로든지 좀 피하려 하나 도무지 꿈쩍을 할 수없이 못하고’ 있다며 당시의 답답한 처지를 생생히 전하였던 것이다.⁵¹⁾ 이렇듯 왕실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순명효황후는 김상덕과 편지 왕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김상덕의 활동을 살펴보면, 김상덕은 순명효황후에게만 의미가 있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요 요직을 역임하며 승지의 지위에까지 올라 고종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김상덕은 1894년 9월 12일 인천부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따라서 1893년 7월 19일부터 1894년 9월 12일까지 김상덕이 인천부사와 감리 인천항 통상사무로 근무했던 기간은 그의 관원으로서의 마지막 활동 기간이 된다. 그리고 이

48) 1894년 6월 22일 고종은 “지금의 모든 서무(庶務)는 긴중한 일이 생기면 먼저 대원군의 앞에 나아가 질정을 받으라.”며 전교를 내렸다. (『승정원일기』 제 3047책, 고종 31년 6월 22일) 이때 시작된 일본에 의한 흥선대원군의 집권은 “태공(太公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뜻에 따라 올해 6월 22일에 내린 ‘모든 사무와 군사 업무를 태공께 나아가 아뢰도록 하라.’고 한 전교를 다시 거두어들이다.”는 전교로 끝이 난다. (『승정원일기』 제 3051책, 고종 31년 10월 25일)

49) 『승정원일기』 제 3047책, 고종 31년 6월 22일.

50) 박종근, 『정일전쟁과 조선』, 박영재 역, 일조각, 1989, 72~76쪽.

51) 해당 서신은 1984년 8월 3일자 서신으로 이기대의 다음 논문에서 상세히 소개되었다. 이기대, 『『明成聖后御筆』 연구』, 『한국민족문화』 4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참조. 당시 명성황후의 상황은 위의 서신 외에도 8월 24일자 서신에서도 확인된다. 명성황후는 ‘전후(前後) 좌우(左右)가 모두 눈’이라 ‘몸을 움직이기가 매우 어렵고 드나드는 사람도 다 믿을 수 없고 왜놈이 각문(各門)에 있으니 어찌할 수 없’고라며 곤란한 처지를 전했다.

기간 동안 김상덕의 활동은 고종과 왕실에 대한 그의 존재감을 보여준다.

김상덕이 인천부사직에서 물러난 데엔 일본의 요청이 있었다. 당시 인천 주재 일본 영사인 노세 다츠고로(能勢辰五郎)는 주한일본공사인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에게 김상덕이 민영준(閔泳駿)의 문하생 출신으로 민씨 일족의 추천으로 영전한 인물이며, 지금은 ‘청국당 일파’와 밀통하며 자신들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성사변(京城事變) 10여 일 전부터는 병을 핑계로 인천부에 칩거하면서 감리서의 사무를 보지 않고 있는데, 실은 그가 비밀리에 영국영사·세관장 그리고 청국당 일파와 내왕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⁵²⁾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김상덕과 영국영사 그리고 청국당 일파가 접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기 전인 7월 5일(음력 6월 3일) 고종은 영국영사 관으로의 파천을 시도한 바 있다. 일본에 의한 압박을 타계하기 위해 영국총영사관으로 은밀히 사람을 보내 망명을 요청한 것이다.⁵³⁾ 한편 일본은 김상덕이 영국 또는 청과 무언가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김상덕의 활동이 일본의 장래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경복궁을 점령한 이후 그를 인천항의 감리업무에서 배제하였다. 무엇보다 인천부사 시절 김상덕은 인천에 머물기는 하였으나 여러 차례 서울을 왕래하면서 고종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⁵⁴⁾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고종의 영관파천 시도와 김상덕의 거취 및 영국 측 인사들과의 은밀한 교류는 당시 정국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김상덕이 고종의 측근으로서 영국과의 소통 창구로 기능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는 것이다.

5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권2, 機密第17號, 1894년 9월 3일.

53) 한승훈, 「19세기 후반 朝鮮의 對英정책 연구 (1874~1895): 조선의 均勢政策과 영국의 干涉政策의 관계 정립과 균열」,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26쪽.

54)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과 인천항 감리가 공무를 위해 관문(關文)과 보고문을 주고받은 기록인 『인천항관초(仁川港關草)』에 따르면 김상덕은 1893년 12월 29일과 1894년 2월 24일, 3월 22일 등에 서울에 간다는 보고문을 올린 바 있고, 상당한 기간을 서울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역주 인천항관초(譯註 仁川港關草)』 下,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10, 270~285쪽 참조). 또한 같은 시기 『승정원일기』에는 김상덕이 검교직각의 직으로 여러 차례 왕실의 제례에 참석한 기록이 확인된다. 즉 인천부사직을 임명받기는 하였으나 김상덕은 고종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이다.

김상덕은 이렇듯 왕실의 인척으로서 고종의 측근 세력의 지위에 있었다. 그러한 김상덕과 순명효황후의 서신 왕래는 1894년 일본에 의해 왕실이 고립된 위기의 순간에 시작된 것이었다.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시작된 서신 왕래는 1904년 순명효황후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왕실은 을미사변과 이관파천 그리고 경운궁으로의 환궁 이후 대한제국의 수립 등 다양한 위기와 변화를 겪었다. 따라서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언간은 이상과 같은 위기와 변화 가운데서 순명효황후라는 왕실의 구성원이 인척이자 근왕세력이었던 김상덕에게 왕실 보호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이 글은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언간 <평일 존명만>을 첫 번째 언간으로 보고, 그 내용을 통해 순명효황후와 김상덕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순명효황후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언간 <평일 존명만>에 대해 검토하였다. 김상덕이 받은 고신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상에 따른 김상덕의 관직 임명 기사를 살펴본 결과 김상덕은 종6품 직각으로 물러난 것이 아니며, 인천부사로 관직에서 물러날 당시 이미 관직과 관품이 정3품에 달하였기 때문에 해당 언간에서 김상덕을 '영감'이라 칭한 것은 적합한 칭호였다. 또한 순명효황후가 김상덕과 자신이 일면부지의 관계라는 서술한 것은 편지글을 작성한 순명효황후 개인의 인식으로, 김상덕이 순명효황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논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또한 순명효황후의 것이 아니라고 지적된 바 있는 필적에 대해서는 동일한 자에 대해 전체 언간의 자형을 비교하였고, 이를 명성황후의 필적과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순명효황후의 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순명효황후의 김상덕의 관계는 단순히 세자빈(또는 황태자비)와 조정 대신의 관계가 아닌 인척관계, 즉 이모부와 조카의 관계임을 규명하였다.

첫 편지인 <평일 존명만>에서 순명효황후가 김상덕과 자신의 매개로 삼은 “송현 외숙”은 순명효황후의 친어머니인 진천 송씨와 남매지간인 송태현이며, 김상덕은 그러한 송태현의 친누이인 송씨와 재혼한 사이였다. 따라서 순명효황후와 김상덕은 인척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순명효황후는 그렇듯 인척관계에 있는 김상덕에게 심리적으로 큰 의지를 하고 있었다. 또한 김상덕의 인천부사 시절의 활동은 그가 순명효황후 뿐만이 아닌 고종과 왕실에 있어서도 자신들을 보위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순명효황후와 김상덕의 관계는 구한말의 정치 권력지형과도 관련된다. 구한말 민씨세력은 명성황후의 인척으로 고종의 친정(親政) 이후 명성황후를 권력의 구심으로 하여 권력 지형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러한 권력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또한 그렇게 축적한 부로 권력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민씨세력의 전횡은 고종 재위기 국정 농단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고종과 왕실의 정치권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권력기반이기도 하였다.⁵⁵⁾ 순명효황후의 인척으로서 김상덕의 위치는 이러한 민씨세력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민영준의 문하생으로 “민씨 일족의 세력을 빌려서 현직으로 영전한 사람”이라는 일본 측의 김상덕에 대한 평가를 상기한다면, 김상덕은 범민씨세력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순명효황후가 김상덕과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이루고자 했던 진정한 목적은 고종과 왕실을 보호하기 위한 인척 관계망의 유지와 관리에 있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하여 순명효황후의 인간은 근왕세력이라 할 수 있는 범민씨세력이 명성황후의 사망으로 권력의 구심점을 잃은 자리에 순명효황후가 소신껏이나마 왕실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5) 장영숙, 「고종의 정권운영과 閔氏戚族의 정치적 역할」, 『정신문화연구』 31(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208-209쪽.

■ 참고문헌

『각사등록』, 『경주김씨태사공파대동보』, 『고종실록』, 『송정후5경진경과증광문무과전시방목』, 『승정원일기』,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박종근, 『청일전쟁과 조선』, 박영재 역, 일조각, 1989.

이남희, 『조선시대 인간을 통해 본 왕실 여성의 삶과 생활세계』, 역락, 2021.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역주 인천항관초(譯註 仁川港關草)』 下,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편, 『조선시대 한글 편지 판독자료집』 3, 역락, 2013.

황문환, 『언간: 조선시대의 한글 편지』, 역락, 2015.

강연임, 『『명성황후 편지글』의 텍스트 구조와 특징』, 『어문연구』 89, 어문연구학회, 2016.

김정호, 『한글 필적감정의 문제점』, 『법조』 57(6), 법조협회, 2008.

노대환, 『閔泳翊의 삶과 정치활동』, 『韓國思想史學』 18, 韓國思想史學會, 2002.

박정숙, 『순명효황후 인간체의 조형성 고찰』, 『한국어정보학』 13(2), 한국어정보학회, 2011.

어강석, 『순명효황후 인간의 작가문제와 작성시기 고찰』, 『청계사학』 25, 2023.

_____, 『藏書閣 所藏 '純明孝皇后 관련 한글 簡札'의 內容과 價値』, 『藏書閣』 17,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이기대, 『『明成聖后御筆』 연구』, 『한국민족문화』 4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이남희, 『구한말 순명효황후(1872~1904) 인간의 특성과 의미』, 『영주어문』 45권, 영주어문학회, 2020.

_____, 『혜경궁홍씨(惠慶宮洪氏)(1735~1815)의 삶과 생활세계 - 언간(諺簡)과 언교(諺敎)를 중심으로』, 『열린 정신 인문학연구』 21(1),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

이종록, 『18세기 경주김씨(慶州金氏) 학주공파(鶴洲公派)의 대두와 기호학계에서의 위상』, 『한국계보연구』 11, 한국계보연구회, 2021.

장경호, 『김상덕의 현실인식과 사회활동 (1852~1924)』, 『청계사학』 25, 청계사학회, 2023.

장영숙, 『고종의 정권운영과 閔氏戚族의 정치적 역할』, 『정신문화연구』 31(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조지훈·한승희, 『문장단위의 필적 향상성 연구』, 『과학수사학회지』 8(4), 한국과학수사학회, 2014.

한승훈, 『19세기 후반 朝鮮의 對英정책 연구 (1874~1895): 조선의 均勢政策과 영국의 干涉政策의 관계 정립과 균열』,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고려대학교 도서관 고지도 컬렉션, <https://library.korea.ac.kr/oldmap/>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시대 한글편지, <https://archive.aks.ac.kr/letter/letter.do?#ist.do?itemId=letter&gubun=lettername>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국고문서자료관, <https://archive.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http://waks.aks.ac.kr/>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ress SunmyeongHyo and Kim Sang Deok from the Letters of Empress SunmyeongHyo

Jeong, So You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author of the Eongan beginning with Empress SunmyeongHyo's <평일 존명만>, an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ress SunmyeongHyo and Kim Sang Deok. This letter was introduced as the first letter sent by Empress SunmyeongHyo to Kim Sang Deok in 1894, but there are objections to it. Therefore, the contents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t were examined in detail.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the contents of the letter matched Kim Sang Deok's personal history, and the handwriting matched that of Empress SunmyeongHyo.

On the other hand, in the letter, Empress SunmyeongHyo mentioned her maternal uncle living in Songhyeon as the person who connects her relationship with Kim Sang Deok. The person Empress SunmyeongHyo called 'the uncle living in SongHyeon' was her mother's brother Song Tae Hyeon, and Kim Sang Deok had a remarried relationship with the daughter of Song Tae Hyeon's father, Song Jae Won. That is to say, Kim Sang Deok and Empress SunmyeongHyo had a relationship of uncle and nephew. In 1894, Japan occupied Gyeongbokgung, putting King Gojong and the royal family in danger. At that time, Empress SunmyeongHyo sent her first letter to Kim Sang Deok. The letter sent by Empress SunmyeongHyo to Kim Sang Deok corresponds to an effort to request the protection of King Gojong and the royal family from Kim Sang Deok, who was a relative of Empress SunmyeongHyo and

* Ph.D. student, Department of History, Wonkwang University

a close royal power.

Key words: Empress Sunmyeong-Hyo, Kim Sang Deok, Eongan, Korean letter, Gojong

